

참되고 완전한 기쁨 :프란치스칸과 고통

고통중에서도 프란시스는 다음에 열거된 체험들로부터 자신감과 기쁨을 간직했다.

- + 하느님의 부성 체험
- +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확고한 믿음
- +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 형제 관계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찬미할 수 있는 체험

(FUN 메뉴얼에 있는”재속프란치스칸의 회칙” 에서 - 데레사 베이커, OFS)

참되고 완전한 기쁨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rue-and-perfect-joy/182-fa-ed-1-page-166> (번역 출처: 프란치스칸 원천 01: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302-303 쪽)

¹어느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 머물고 있을 때 레오 형제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같은 형제[레오나르도 형제]가 전하였다: “레오 형제, 기록하십시오”, ² 레오 형제가 대답하였다: ”예, 준비되었습니다”. ³프란치스코가 말했다: “어떤 것이 참된 기쁨인지 기록하십시오”.

⁴“어느 소식 전달자가 와서 파리의 모든 교수들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왔다고 전한다고 합시다.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십시오. ⁵마찬가지로 알프스 산 너머 모든 고위 성직자들, 대주교들과 주교들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오고 또 프랑스의 왕과 영국의 왕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왔다고 전한다 해도,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십시오. ⁶마찬가지로 나의 형제들이 비신자들에게 가서 그들 모두가 신앙을 갖게 하였고, 또한 내가 병든이들을 고쳐 주고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큰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한다 해도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.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.”

⁷“그러면 참된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?” ⁸“내가 페루지아에서 돌아오는데 이 곳에 밤이 깊어 도착합니다. 때는 겨울이고 진흙길이 몹시 추워, 나의 수도복 자락에 젖은 찬물이 얼어 고드름이 되고, 그 고드름이 자꾸 다리를 때려, 다리의 상처에서 피가 나옵니다. ⁹그리고 내가 추위에 떨면서 진흙과 얼음에 뒤범벅이 되어 문에다가가서,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부르기를 수차례 한 다음에야, 형제 하나가 나와서 ‘당신은 누구요?’ 하고 묻습니다. 나는 ‘프란치스코 형제입니다’라고 대답합니다. ¹⁰그는 ‘씩 물러가거라, 지금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니, 들어올 수 없다’ 라고 말합니다. ¹¹내가 다시 애걸하자, 그는 ‘씩 물러가거라, 어리석고 무식한 것아,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지 말아라. 우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, 너는 필요 없어!’라고 대답합니다. ¹²나는 또다시 문 앞에 서서 ‘하느님의 사랑으로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받아 주십시오!’라고 애걸합니다. ¹³그러나 그는 ‘그럴 수 없어! ¹⁴십자가 수도회로 가서 부탁해 봐!’라고 대답합니다. ¹⁵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인내를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,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참된 덕도 영혼의 구원도 있다고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”.

꼼꼼히 생각해 봐야할 질문들 (토론을 위하여)

+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전생애에 걸쳐 인내했던 고통은 어떤 것들입니까? 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

+“완전한 기쁨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겠습니까? (위의 글 “완전한 기쁨”을 다시 읽거나 위에 제시된 링크에 들어가 보시오)

+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?

+고통을 어떻게 관망합니까?

+고통이 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입니까?

사순절 도전: 예수님의 고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바쳐 보시오.